

증세·개혁 여론전으로 ‘여소야대’ 넘기

민주 집권 초 동력 집중...“명예과세 국민 여론 압도적 지지”

우,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언급...추, 법원·검찰 개혁 주문

더불어민주당이 초고소득 증세에 이어 국가정보원과 사법 개혁까지 나설 태세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은 집권 초반에 전방위로 개혁드라이브를 걸어 대선 때 내걸었던 개혁과제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집권 1년 내에 중요 개혁과제를 이루지 못하면 추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여론전을 통해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의 문턱을 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초대기업, 초고소득자에 대한 명예과세에 국민의 85%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

대표도 “현재 조세 개혁에 대한 국민 여론의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고 정치권 논의의 필요성도 틀림없음”이라는 만큼 현실적인 과세 정상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7일 당정 협의를 통해 증세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일단 초대기업·초고소득자 대상으로 과표 구간을 신설해 세금을 늘리자는 추 대표의 지난 20일 제안이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 정책위원회는 개인의 연소득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세율을 기존 38%에서 40%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번 세법 개정안에 이 같은 방안

이 포함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는 조세 정의 및 정상화, 증세 효과 등의 이유로 증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지만 조세 문제는 민감한 이슈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게 당 지도부의 인식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우리는 소수 여당이기에 때문에 여야가 공감하는 선에서만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면서 “일부에서는 더 강하게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지만, 실현 가능한 안을 갖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원내 지도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전에 초고소득 증세 문제를 마무리한 뒤 추가 세제 개편 문제는 정부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확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조세 제도 정비 차원에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나 세제 지원 확대 등은 이번엔 같이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증세와 함께 개혁 드라이브도 본격화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보수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문제를 공식 언급하고 나섰다. 여기에 더해 여당 투 토크인 추 대표와 우 원내대표는 법원과 검찰에도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하면서 사법개혁에도 시동을 거는 양상이다. 민주당이 이런 전방위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 첫해인 올해 정기국회에서 개혁 성과를 내지 못하면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인식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참담’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조작된 취업특혜 제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26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시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으로 들어오며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주 “제보조작 전혀 몰랐다”

참고인 신분 검찰 출석...고의성 포착 땀 새 국면

26일 대선 당시 안철수 캠프 공명선거 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이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두했다. 그는 검찰 청사로 들어가기 전 기자들에게 “대선 과정에서 이유미 제보 조작 사건으로 인해 많은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드립니다”며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으신 문재인 대통령과 문준용 씨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고 사과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그분들께서 받으셨을 충격과 실망감에 대하여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하지만 저희들은 국민들을 결코 속이려고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제보 과정에 조작된 증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렇지만 더 이상 구구한 말로 변명하지 않겠다”며 “이번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 수 있도록 제가 알고 있는 그대로를 검찰에 말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조작된 제보가 폭로되기 전 날인 5월 4일, 현재 구속되어 있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파스너 디자인스쿨 동료의 증언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와 녹취록을 받았다. 이 의원은 이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조작된 제보 자료를 직접 건네받

고도 충분한 검증은 거치지 않은 채 공개를 결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 조사를 받은 공명선거추진단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55·전 의원)과 김인원 전 부단장(55·변호사)도 “이 의원이 폭로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제보 공표의 최종결정권자가 없었다”며 이 의원의 연루 가능성을 일축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의원이 공명선거추진단장으로서 제보 검증 책임이 있는 ‘당사자’라는 점을 고려해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그의 보좌관 김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정밀분석하고 비공개 참고인 조사 등 보강조사를 통해 이 의원이 받는 의혹을 들여다봤다. 검찰은 이날 이 의원을 상대로 제보조작 과정에 관여했는지, 조작사실을 미리 알고도 폭로를 묵인했는지 등 ‘고의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날 조사에서 추가 혐의점이 포착되지 않을 경우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의 기소와 함께 공명선거추진단 실무자의 신병처리도 결정하는 등 수사 종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반면, 이 의원이 사전에 조작사실을 알고도 묵인·방관한 혐의가 포착되면 새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어 주목된다.

/임동욱기자 tuim@

휴가 짐싸는 여야

이달말·내달 초 하계휴가...첫 정기국회 앞두고 숨고르기

여야 지도부가 이달 말부터 다음달 초까지 하계휴가를 떠날 것으로 보인다. 증세 논쟁 등으로 정치 하한기가 사실상 없어졌지만 조기 대선부터 인사·추경 정국까지 얹은 일정을 소화한 각 당 지도부는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재충전의 시간으로 가지며 정국 구상에 들어가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휴가를 떠난다. 공식 일정 없이 지역에서 하반기 정국 운영 구상에 매진한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다음달 3일 오전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후 7일까지

가족들과 국내에서 휴가를 보낼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오는 31일부터 내달 4일까지 여름 휴가에 들어간다. 홍 대표는 고향인 경남에 머물면서 정국 구상을 할 예정이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오는 30일부터 사흘간 휴가를 냈다. 지역구인 충북 정주시 상당구에 사상 최악의 수해가 발생한 만큼 지역구에 머물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휴가를 대신할 예정이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별도로 휴가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 8·27 전 당대회를 앞두고 다소 혼란스러워진 당 안

팍을 재정비하는 데 에너지를 쏟을 방침이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휴가 없이 다음달 2일부터 13일까지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고 파키스탄과 미얀마 등을 순방하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동행한다. 바른정당 이해훈 대표는 여름 휴가 없이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당 지도부와 함께 매주 지방 곳곳을 돌며 당 알리기 캠페인인 ‘바른정당 주인찾기’를 벌이기로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20일부터 이미 열흘간의 휴가를 떠났다. 불교단체와 함께 중국과 몽골의 실크로드를 순례하는 일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청개구리’ 한국당

정부 증세에 감세 맞불...여당시절 올렸던 담뱃세 인하 추진

자유한국당이 담뱃세에 이어 유류세 인하까지 추진하고 나섰다. 정부·여당의 증세 추진에 ‘서민 감세’로 맞불을 놓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담뱃값은 박근혜 정부 때 여당이던 새누리당(한국당 전신)이 정부와 함께 인상을 주도한 것이어서 당 안팎에서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26일 “서민 부담 경감 차원에서 지난 대통령선거 때 홍준표 당시 후보가 공약했던 사안들”이라며 “비록 대선에서는 졌지만, 약속을 이행해 서

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담뱃값 인하는 현행 4500원을 원래 수준인 2500원으로 내리는 게 골자다. 애초 한국당은 새누리당 시절 ‘국민 건강’을 이유로 담뱃값을 올렸을 당시 ▲개별소비세 신설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인상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을 통해 담뱃값을 인상했었다. 따라서 이들 세 가지 부문에 대한 법 개정을 다시 원상 복귀시킴으로써 담뱃값을 현행보다 2000원 내리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도 홍 대표가 대선후보 시절 발표했던 공약 중 하나다. 배기량 2000cc 미만의 모든 차종에 대해 유류세를 절반으로 인하하겠다는 했다. 당시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액은 약 7조2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었다. 한국당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로 해당 세금은 줄어들겠지만, 소비 진작이나 내수활성화를 통해 다른 종류의 세수는 증가하는 효과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담뱃값 인하의 경우 여론 동향을 더욱 자세히 살핀 뒤 최종의사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부동산

중개법인

한

국

토

지(주)

광주,전라 추천물건

치평동 중심상가

일반물건



토지 191평

건물 770평

매매가 53억

토지

▶담양군 담양읍 삼다리 준공업지역 개발촉진지구 토지 523평 **감정가 311,000,000** **최저가 311,000,000**

▶나주 봉황면 황룡리 생산관리지역 과수원 반암마을인근 토지 3251평 **감정가 270,000,000** **최저가 216,000,000**

▶신안군 중도면 방축리 계획관리지역 큰도로점 해안가 토지 1200평 **감정가 103,000,000** **최저가 103,000,000**

근린시설

▶서구 풍암동 근린주택 풍암동성당인근 토지 102평 건물 223평 **감정가 984,000,000** **최저가 689,000,000**

▶남구 송화동 광주대 인근 토지 138평 건물 492평 **감정가 1,227,000,000** **최저가 859,000,000**

▶광산구 장덕동 하남일반산업단지 내위치 토지781평 건물518평 **감정가 1,786,000,000** **최저가 1,250,000,000**

▶장성 삼계면 주산리 백산마을인근 토지 176평 건물111평 **감정가 387,000,000** **최저가 271,000,000**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요양병원 토지 3493평 건물 1734평 **감정가 49억** **최저가 14억**

공장

▶광산구 장덕동 하남일반산업단지 내위치 토지781평 건물518평 **감정가 1,786,000,000** **최저가 1,250,000,000**

▶장성 서삼면 송현리 환경에너지 토지 1361평 건물 372평 **감정가 938,000,000** **최저가 526,000,000**

▶나주 왕곡면 송축리 계획관리지역 분노쓰레기처리 토지 7693평 건물 1548평 **감정가 2,928,000,000** **최저가 2,050,000,000**

▶나주 다시면 월태리 원동마을내 토지 754평 건물 325평 **감정가 591,000,000** **최저가 414,000,000**

【법원 경매/공매】

일반물건

▶북구 운암동 중흥아파트인근 수익형빌라 토지 110평 건물 124평 **매매가 520,000,000**

▶담양군 담양읍 로터리 중심상가 대지 144평 건물 2층 **매매가 11억**

▶서구 중심상가 4층건물 현재 성업중 토지 133평 건물면적 90평 **매매가 23억**

▶서구 풍암동 중심상가 근린시설 토지 400평 건물면적 100평 **매매가 17억**

▶서구 치평동 근린시설 현재 성업중 토지 120평 건물 614평 **매매가 38억**

▶서구 치평동 소각장인근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지 377평 타입중 가능 **매매가 17억**

▶서구 마록동 도시지역 도시철도공사 뒤편 대지 508평 건물 302평 **매매가 38억** 조정가

▶광산구 비아동 아파트자리 토지 약 2000평 **매매가 평당 280만원**

▶북구 신안동 추상북합상가 전남대정문인근 (1층, 2칸) 건물 32평 **매매가 3억5천** (용자 2억5천, 보증금5천, 월143만원)

▶담양군 대덕면 장산리 전원주택 최적지 유휴관리근 토지 359평 **평당 40만원**

▶담양군 남면 경산리 전원주택지 1층일반주거지역 무등산자락 토지 456평 **3억** 조정가능

▶태양광가능 평당 2만원 강진 신전면 수양리 임야

▶상무지구 중심상권 커피전문점 6층건물 1층 50평 **5천만원 월 300백 시설비 8천** 조정가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11필지 자연녹지 택지조성 완료 대나무 생태공원조성사업 2540평 **5억 5천만원**

▶나주 금천면 오강리 자연녹지 과수원 1600평 **4억**

010-3070-2147 유 여사

투자금 100% 보장
부동산매도 매수환영

010-8559-8905 이용국 팀장